

광주·전남지역 산업구조에 따른 제조업 고용 상관관계 분석

박기영*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도 중 9위이며, 2009년말 현재 인구수도 한국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여 191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역시 전국 순위 9위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인구 143만명을 합하면 광주, · 전남지역의 인구는 334.6만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6.72%가 된다. 면적은 전국의 12.2%인 12,213km²로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안선은 6,419km로서 전국의 50%를 갖고 있어 가장 해안선의 길이가 길며, 갯벌은 1,054km²로서 전국의 44%로서 역시 가장 넓은 갯벌을 갖고 있고 또한 섬은 1,964개로서 전국의 62%를 갖고 있어 역시 가장 많은 수의 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넓은 평야지역과 다도해로 이루어진 전남은 천혜의 해양자원을 비롯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조건도 살기 좋은 편이다.

전남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특히 여수 등의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7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의거하여 장치산업 위주의 생산지로서 발전한 결과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신·재생에너지, 관광, 물류 등 새로운 산업도 병행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2009년 예산 기준으로 전남이 19.4%, 광주는 이보다 더 낮아 19.2%로서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라남도는 2008년 기준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9.5%로서 전국 평균 2.9%보다 월등하게 높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아 전남 취업인구의 28.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과 광주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3.7%에 달해 2,000년대 들어 빠르게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남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장흥군 등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남 지역의 농림어업이 고령인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고령인구가 10년 내에 농업 현장에서 은퇴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전남 지역의 농림어업의 공백을 어떻게 매꿔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인구 중심의 가족농 유형의 농림어업 감소에 따른 대책과 함께 전남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원인으로서는 산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제조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는 전국 대비 3.9%, 종사자수는 5.0%이었으며, 출하액 비중은 10.3%로서 사업체당 대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남 지역에 여수 중화학공업단지과 광양제철단지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들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부가가치 10억당 종사자수를 산출해 보면 3.0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용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남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

*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물학과, 061-750-3617, plpm@sunchon.ac.kr

표적인 중화학공업단지인 울산의 2억7천만원 보다 더 높아 3억4천만원이었다.

또한 전남의 사업체당 부가가치액은 179.5억원으로서 울산의 321.1억원의 약 55.9%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의 부가가치율이 울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 지역의 중화학공업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사자 500인이상 대기업이 전국의 4.8%인 14개 기업이며, 이들 대기업 종사자의 1인당 급여액은 연 6천1백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천8백만원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광주 3천7백만원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제조업 중 전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초소재형 산업으로서 총부가가치 기준 전국 대비 1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 광주 총부가가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소재가 산업 상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초소재의 총부가가치가 2005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편이다.

전남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도매·소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중은 40% 내지 30% 수준에 달하며,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20% 대에 달하는데 이들 업종의 총부가가치 비중은 광주, 전남 지역의 총부가가치대비 각각 11%, 1.76%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에서 음식·숙박업의 경우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들 전통 서비스업의 열악함은 결국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며, 생산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전남의 전통주력산업인 중화학공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산업 주기상 성숙기의 최고조에 달한 산업이며, 고용창출 여력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인식에서 전남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는 문제점을 출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산업 영역인 중화학공업과 철강산업은 주요한 대수출국인 중국이 후발국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축적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중화학산업은 원유생산국인 중동에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선산업도 역시 중국이 수주 물량에서 우리나라를 바짝 쫓아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주력산업의 산업의 이러한 외형적 조건 외에도 전남에는 이들 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추가하는 단계별 가치사슬이 결여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철강 등 1차 소재가 주를 이루면서 전후방 효과가 강한 유관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산된 제품이 거의 가공 단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자본집약적 전통주력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전국가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들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벌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이며, 그 외에도 다국적기업이므로 전남의 지역 차원에서는 분석을 수행하거나 대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남 지역의 비전을 수립하는 정책연구에서도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거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된 주력전통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논의에는 상당부분 농업과 생태관광 등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 위주로는 전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현재 국가 차원이나 전남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남의 발전 비전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이라는 비전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광산업, 신소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의 주력 전통산업을 놓고 이의 발전 비전을 논의하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 광주지역의 이러한 산업구조의 원인과 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전남 지역의 주력산업들에 대한 산업적 분석과 함께 고용구조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접근은 전남 지역의 미래 비전 수립에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남은 세계 시장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동북아 경제블록을 연결하는 중심축에 자리잡고 있다. 횡적으로는 관동경제권과 관서경제권 및 중국경제권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한중일 무역 및 기술의 분업구조를 잘 활용하여 G2의 한 국가인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남 지역의 성장도 확실시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광양만권이 이러한 한중일 분업구조 속에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정립시켜 나가야만 광양항도 무역항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중화학 석유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의 현황 및 미래에 대하여 관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 및 고용인원을 비롯하여 입주기업의 고용인원과 고용 상위 기업의 업종 등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 자료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소득 자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통계청 자료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국민계정과 산업연과표 등을 비롯하여 전남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내 총생산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자료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지역입지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산업분야가 집중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의 경제적 효과, 고용효과, 전후방 효과 및 지역경제와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III. 전남의 산업단지 생산 및 고용 현황

1. 광주전남 산업단지의 조성 현황

2010년 1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 40개소로서 분양률 99.4%로 862,686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 산업단지는 전국에 382단지, 농공단지는 403단지, 도시첨단단지는 전주도시첨단 등 6개 단지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365,995천㎡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분양은 총 98%에 달한다 (표 1). 2010년 1/4분기 현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는 132개 단지가 있는 충남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130개 단지가 있는 경남, 101개 단지가 있는 경북, 100개 단지가 있는 경기의 순이다 (표 2).

[표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 개, 천㎡, %)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40	862,686	554,092	265,346	231,985	230,476	1,509	99.4
일 반	382	438,240	430,496	258,281	127,959	122,362	5,597	95.6
도시첨단	6	720	720	356	67	67	-	100.0
농 공	403	64,349	63,947	49,925	44,040	42,884	1,156	97.4
계	831	1,365,995	1,049,255	573,908	404,051	395,789	8,262	98.0

주 1)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 제외), 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출처: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러나 산업단지로 조성된 지역의 산업시설구역 면적으로 본다면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산업시설구역인 102,127천 ㎡에 79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체 산업시설구역의 17.8%에 이를 정도이다 (표 2). 경기, 경북, 경남, 충남 등의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은 전남보다 월등하게 작아 65백만 - 60백만 ㎡에서 정도로서 전남 지역의 약 60% 정도에 불과하다. 광주에는 국가산업단지가 2단지, 일반산업단지가 6단지, 농공단지가 1개 단지이며, 전남에는 국가산업단지가 5단지, 일반산업단지가 26단지, 농공단지가 48개 단지이다 (표 3)

[표 2]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 천㎡, %)

시도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전국	831	1,365,995	1,049,255	573,908	404,051	395,789	8,262	98.0
서울	3	3,251	3,251	2,374	1,632	1,632	0	100
부산	19	34,251	31,582	18,076	10,665	10,638	27	99.9
인천	9	18,651	18,289	11,406	10,107	9,917	190	96.5
대구	15	38,270	37,346	20,548	12,662	12,303	359	98.6
광주	9	26,535	19,887	13,815	10,303	10,174	129	98.2
대전	3	71,673	70,787	5,818	5,466	5,466	0	100
울산	17	85,009	75,414	56,660	51,375	51,176	199	99.6
경기	100	304,216	101,129	59,265	44,468	44,065	403	99.2
강원	56	20,135	17,795	11,429	7,372	6,876	496	94.7
충북	90	57,559	57,031	31,397	19,925	18,809	1,116	97.5
충남	132	98,195	94,947	60,541	35,648	35,226	422	98.6
전북	67	120,425	76,626	50,348	36,290	35,761	529	98.7
전남	79	252,729	224,317	102,127	63,620	62,628	992	96.0
경북	101	122,224	120,388	65,290	49,145	46,843	2,302	94.7
경남	130	111,266	98,902	64,073	44,716	43,800	916	100
제주	5	1,606	1,564	741	657	475	182	78.3

출처: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출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3] 전남의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 천㎡, %)

시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광주	국가	2	11,848	5,477	3,843	1,975	1,872	103	94.8
	일반	6	14,363	14,086	9,710	8,066	8,040	26	99.7
	농공	1	324	324	262	262	262	-	100.0
전남	국가	5	173,857	145,939	56,029	49,295	49,189	106	99.8
	일반	26	70,215	69,803	39,360	8,413	7,778	635	92.5
	농공	48	8,657	8,575	6,738	5,912	5,661	251	95.8

주) 빛그린은 광주(광주지구)와 전남(전남지구)

출처: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로는 여수산업단지, 광양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삼일자원비축단지, 울촌자유무역지역, 대불자유무역지역 등 5개 단지가 있는데 그 조성 면적은 전국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데 이는 영남의 중화학공업단지인 울산보다도 5,685천 ㎡가 더 넓은 면적이므로, 분양율은 99.8%에 달하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이다. 1967년 여천공업단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여천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었다. 입주업종으로는 석유화학 1,2단지는 석유화학 및 관련업종이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연관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후방산업과 운송 지원산업을 유치,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입주업종으로는 제철, 목재, 화합물,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업종이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단지 내에 대불외국인 투자지역과 대불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남 서남권 개발 촉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국,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광주에는 북구에 국가 산업단지로는 현재 조성중인 광주첨단단지를 비롯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지만 면적으로는 전국 국가산업시설구역의 1.4%에 불과하다. 호남권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95%를 넘는 수준이며, 공실률도 낮은 편이다. 기업들은 비교적 산업단지 입주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남, 광주지역의 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할 상황이다.

2. 광주전남 산업단지의 고용 현황

2010년 1/4분기 산업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자료를 근거로 2010년 3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입주 업체 현황을 공장 가동 업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국가산단에 34,583업체, 일반산단에 15,758업체, 도시첨단산단에 108개 업체, 농공단지에 4,976업체로서 총 55,425업체가 산업단지에 존재한다. 공장설립 후 가동 업체의 비율을 보면 국가산단에서 99.5%로 가장 높으며, 일반산업단지에서는 98.1%이며, 농공단지가 가장 낮아 93.9%를 나타내었다. 고용인원을 보면 국가산단에 858,194명, 일반산단에 512,228명, 도시첨단산단에 857명, 농공단지에 122,771명으로서 산업단지 중에서는 국가산단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수가 가장 많았다.

전국적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볼 때 생산실적과 수출실적이 1위인 산업단지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이며, 그 다음 순위로는 산업면적은 13위이지만 생산실적과 수출실적은 2위인 구미국가산업

단지(1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생산실적과 수출실적이 3위인 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 면적은 2위이며, 고용순위는 상당히 뒤쳐져서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의 산업단지에서는 전국에서 25위 안에 들어가는 산업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수는 4개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실적과 수출실적이 25위 안에 드는 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이 있는 광양국가단지 등 단지 2곳 뿐이다.

산업면적, 생산실적, 수출실적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에 비해 고용순위는 산업단지의 업종에 따라 크게 달랐다. 고용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산업단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특수산업단지로서 생산실적은 울산미포산업단지에 비해 45%에 불과하여 전국 순위 4위에 불과하였으며, 수출실적은 전국 순위 12위인 4,587고용인원은 190,177명으로 최대를 나타내었다. 입주기업 수도 9,959개에 달하며,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수는 26개로서 전체 기업의 0.2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3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주요 생산품목도 전기전자, 운송장비, 석유화학, 기계 등 다양하였다. 종업원 2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은 34개에 불과하였으며,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151개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 9,700개 이상이 제조업 중심의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었다.

또한 고용순위 2위인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보면 산업용지는 1,500천 m²에 불과하며, 생산실적은 전국 30위인 42,223억원에 불과하며, 수출실적도 전국 35위인 1,037백만달러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120,097명에 달한다. 주요업종으로는 롯데정보통신 등의 비제조업인 소프트웨어 생산업체가 주요한 업종인 것을 비롯하여 전자부품업체, 석유화학,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은 총 7,050개인데 이중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26개에 불과하여 0.36% 수준이며, 그 외 대부분인 7000개 이상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이중 종업원 2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은 28개이며,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102개에 달하며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241개이었다. 경기도 안산시의 반월지구와 시화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반월특수지역국가산업단지와 서울시 구로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비제조업이 입주한 지역일수록 고용인원이 높은 편이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산업용지 면적은 전국에서 6위를 나타내었지만 생산실적은 전국 5위이며, 수출실적은 전국 4위이며, 고용인원 순위는 반월특수지역, 서울디지털단지, 울산미포산업단지의 다음 순위를 기록하였다. 주요기업으로는 철강생산 업종의 두산중공업과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현대로템,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엘지전자를 비롯하여 기계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이 주를 이루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12개인 것을 비롯하여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30개로서 전체기업 1,767개 중 1.7%를 차지하였다.

광주시는 2010년 3월 현재 9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가동업체 수는 1,937개로서 51,169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09. 3보다는 4,051명이 증가하였다. 전남에는 79개 산업단지에 70,433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도 동월에 비해 3,728명이 증가하였다. 2010년 들어 최근 세계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전국적으로 고용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데 역시 광주와 전남에서도 고용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고용개선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남은 국가 산업단지의 시설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었지만 고용인원은 울산지역의 약 65%, 경북지역의 54%, 경남지역의 41%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남지역에 석유화학 중심의 정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제조업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에서의 고용이 제조업 전체 고용의 38.9%이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에는 전남 제조업 고용의 89.7%가 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에는 전체 고용의 60.7%가 산업단지 고용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울산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산업단지에서의 고용비율이 높아 65.9%이지만 경북은 60.6%, 경남은 44.9%에 불과하였다 (표 4).

특히 전남의 경우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여수, 광양 등의 전남 동부권과 대불단지의 제조업 고용을 제외하면 그 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제조업체 고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은 석유화학과 1차 금속 등 전형적인 장치산업 시설로서 고용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제조업 고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소재 위주이므로 지역내 가치 사슬이 발달하지 못해 지역 전체의 고용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제조업 종사자 중 79.3%가 지방산업단지인 일반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에는 17.6%, 농공단지에는 3.1%가 고용되어 있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7만8천명이므로 전남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고용의 90%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전남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 고용은 37,344명에 불과한데 시설면적이 70.1%, 51.5%에 불과한 경북과 경남지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서의 고용은 각각 80,722명과 119,247명으로서 전체 산업단지 고용의 61.8%와 69.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시설면적은 전남 지역이 월등하게 넓지만 전남 국가산단에서의 고용에 비해 경북국가산단에서는 2.2배, 경남국가산단에서는 3.2배에 이른다. 이처럼 전남 지역의 고용은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울산과 비교해도 국가산단의 시설면적이 전남보다 약간 작지만 고용은 전남에 비해 2.7배에 이른다. 이는 근본적으로 1차금속과 석유 등의 기초소재 위주의 장치산업이라는 산업구조에 근본원인이 있다.

[표 4] 각 시도별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

단위: 1,000명

고용 \ 지역	전국	광주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제조업고용 ¹⁾	3,836	84	78	164	216	385
산업단지고용 ²⁾	1,494	51	70	108	131	173
산업단지 고용비율 (%) ³⁾	38.9	60.7	89.7	65.9	60.6	44.9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2008) 기준

1) 2009년 말 기준

2) 2010.3 기준

3) 산업단지고용비율 = [산업단지고용인원/제조업고용인원] × 100

출처: 국가통계포털,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전남의 경우에는 총 취업자 909천명 중 제조업 취업률은 8.5%에 불과하였는데 이 값은 전국 평균인 16.3%에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29.3%인 267천명으로서 농림어업 취업률은 전국 평균 7%에 비해 4.2배에 달하였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농림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남자의 경우 제조업 취업률은 10.1%이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5.8%에 불과하였다.

전남의 제조업 취업 정도를 영남지방과 비교하여 보면 경북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311천명으로서 23.0%이었는데 제조업 취업률은 8.5%인 전남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16.0%이었는데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자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8.9%이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12.4%로서 전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경남의 경우 농림어업 취업자율은 12.6%인 191천명이었으며 제조업 취업률은 25.3%로서 전남의 8.5%, 경북의 16.0%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남자의 제조업 취업률은 33.0%로서 전

국 평균인 16.3%에 두배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여자의 제조업 취업률은 5.8% 수준이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1% 수준이었다.

장치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지역인 울산지역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31.4%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전국 평균의 1.9배 달하였으며, 이중 남자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44%로서 남자 2인중 한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1인당 GRDP가 4만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울산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역시 높은 수준인 9.1%가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에는 포스코가 입주하여 있는 광양제철과 함께 광양연관산업단지로서 이루어진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철강과 기계 부문을 주요 업종으로 총 10,354명이 고용되어 있다 (2010년 3월 현재). 광양제철에 6,297명을 비롯하여 4,074명이 고용되어 있는 광양연관산업단지에는 (2009년 말 현재) 73개 입주계약업체 중 64개 기업체가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83.0%에 이른다. 포장용강재를 생산하는 삼정피앤에이가 668명, 내화물을 생산하는 조선내화 265명,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OCI가 209명, 운송업을 하는 한진이 151명, 서강기업이 150명, 대한통운이 119명, 하역운송업의 셋방이 95명, 항만하역서비스를 담당하는 동방이 80명, 철강을 생산하는 심진기업이 75명, 건설기계장비를 생산하는 소모홀딩스가 66명, 선반블럭을 생산하는 오리엔탈중공업이 69명 등을 고용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에는 268개의 입주계약업체 중 206개사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205개사가 가동되고 있으며, 가동율은 92.0%로서 전국의 국가산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석유화학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고용된 인원은 총 15,231명이 고용되어 있다. 고용자수가 가장 많은 기업체는 GS칼텍스로서 1,465명, 대창기계공업에 803명, 한화석유화학 여수 1공장 768명, 호남석유화학 496명, 여천NCC 여수공장 (1사업장) 453명, 제일모직 442명, 남해화학 419명, 한국 바스프 369명, 한국실리콘 300명 등이다.

목포에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에는 2010년 3월 현재 총 332개의 입주계약업체 중 공장설립이 완료된 업체로는 296개가 있으며 이중 가동업체는 286개가 있는데 대불산업단지에 223개, 대불외국인산업단지에 33개, 대불자유무역지역에 30개 등이 입주되어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다소 낮은 76.4%를 나타내었다. 고용인원은 전남의 국가산단 중에는 가장 많은 수의 15,231명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기계, 운송장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대불산업단지에 7,216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대불국가산단과 보다 좀 넓은 면적의 구미1산업단지에는 65,662명의 고용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전남의 광양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고용효과는 상당히 낮은 것이다. 전남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주요 업종이 석유화학과 철강 등 1차 소재이며, 이들 생산물의 가공과정 등 연관산업과정을 담당하는 기업체가 전남에 많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초소재 제품은 중국 등 해외지역으로 수출되는 비중도 높은 편인데 이러한 점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광주, 전남 지역 산업단지 중 고용이 가장 많은 산업단지로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인 하남산업단지이다. 생산실적은 80,698억원으로서 가장 생산실적이 뛰어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21%에 불과하지만 고용인력은 27,462명으로서 여수산업단지의 2배에 달한다. 기계업종인 화천기공이 있는데 근로자수가 2009년 9월말 현재 300명이다. 따라서 하남일반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수는 948개인데 이들 대부분이 종업원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업종도 기계, 전기·전자, 섬유·의복,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 다양하였다.

이에 비하여 광주 전남지역의 산업단지 중 고용인력이 2위인 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입주기업 264개 중 8개 기업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서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3%에 해당한다. 업종도 대부분 석유화학업종으로서 등유, 디젤, 나프타 등을 생산하는 GS칼텍스에 1,465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여천 NCC 공장 및 ABS 수지 등을 생산하는 제일모직 등 대규모 장치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종업원 200인 이상의 중견기업도 13개이며, 나머지 기업의 고용인원도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었다.

2009년 9월말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378,438억원으로서 울산미포산업단지에 비해서는 53%에 불과하며,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는 84%,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는 122%에 달하지만 고용인원은 13,937명으로서 울산미포산업단지의 87,807명에 비해 15.9%에 불과하며, 구미산업단지에 비해서는 21.2%에 불과하며, 생산실적이 더 낮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도 17.4%에 불과하였다. 특히 광양제철을 중심으로 한 광양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볼 때 생산액은 18%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10,371명으로서 여수산업단지의 75%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업종 특성상 광양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다른 어떠한 산업단지보다도 고용창출력이 매우 낮은 구조를 갖고 있다.

광양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생산실적은 68,173억원으로서 유사한 생산실적을 나타내는 청주일반산업단지의 22,250명의 고용보다 반에도 못미치는 10,371명으로 고용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92,051억원 생산실적에 6,48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광양제철은 57,635억원 생산실적에 6,297명의 고용인원이 있어 생산액 대비 고용창출은 포항제철보다는 광양제철이 다소 높았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광양제철 단지와 광양연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광양연관단지의 생산액은 68,173억원으로서 광양제철의 생산액은 57,635억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생산액인 10,538억원은 광양연관산업단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연관단지의 고용은 4,074명에 이른다. 주요 업종으로는 삼정피앤에이의 포장용강재 생산업체의 668명 고용을 비롯하여 철강업종과 비금속소재업종이 주를 이루며 운송업체들도 입주하고 있다.

한편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생산실적은 15,540억원에 불과하여 여수산업단지의 4.1%, 광양산단의 22.8%에 이르지 않지만 고용인원은 여수산단의 13,937명과 유사한 13,889명에 달한다. 대불국가산단에는 총 334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있는데 이중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현대삼호중공업에 480명이 고용되어 있는 등 고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총 5개로서 전체기업 대비 대기업 비중이 1.5%에 해당한다. 선박구성부품을 생산하는 한영산업에 352명, 선박기자재를 생산하는 미래중공업에 338명, 선박블럭을 생산하는 현대삼호중공업에 320명과 선박구성품을 생산하는 마린텍에 300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처럼 대불산업단지에는 생산액에 비해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단지 및 광양연관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을 나타낸 이유로는 고용창출계수가 비교적 높은 분야인 선박과 기계 등의 산업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영암의 삼호읍에 입주하여 있는 선박건조업의 현대삼호중공업은 32,098억원의 생산액을 나타내는데 총 11,054명이 고용되어 있어 여수산업단지에 비해 생산액은 1/10에도 못미치지만 고용인원은 80%에 달한다. 특히 광양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에 비해서는 약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고용인원은 광양국가산업단지보다 많은 편이다 따라서 선박 등의 기계 산업이 고용창출력이 석유화학 및 철강 등의 1차소재업종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북구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에는 전기 전자 업종의 앰코코리아가 입주하여 있는데 근로자수가 2,925명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서 미국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Inc.)의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1968년 처음 시작한 아남산업의 후신으로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이다. 그 외에도 컴프레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광주공장이 입주하고 있어 536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그 결과 광주첨단단지에는 전기, 전자 등의 유관업종이 많이 입주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10,413억원이며, 8,372명이 고용되어

* 앰코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있다. 광주첨단단지 입주하여 있는 전체 기업수는 440개인데 이들 두 개 기업은 종업원이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지만 그 외의 기업은 2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업종도 기계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단지 일수록 고용인원이 많은 편이다 산업중분류에 따른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수를 보면 2009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전체 기업 중 300명 이상의 대기업 비중은 2.2%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영역은 식료품 제조업으로 대기업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영역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대기업 비중이 3.4%이며, 다음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전기전자 제조업으로서 대기업 비중이 3.1%에 달한다. 화학물질과 1차 금속제조업 등은 대기업 비중이 2.1% 정도이다.

3. 광주전남 주력산업의 고용에 따른 지역소득분배효과 분석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부 상의 2009년 연말 기준 전국의 인구는 4,977만명으로서 전년도 4,975명에 비해 2만명이 증가하였다. 광주시의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0,938명이 증가하여 2009년 말 143만명에 이른다. 전남의 인구는 2009년말 현재 1,913만명으로서 2005년도에 비해서 54,201명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5,996명이 감소하였다. 1995년도 2,186명, 2000년 2,131명인 점과 비교하여 보면 전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은 여수시로서 293,5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순천시로서 244,3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번째 지역은 목포시로서 244,339명이 거주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143,641명이 거주하고 있어 광양만권인 여수, 순천, 광양의 3개시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706,523명에 이른다.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로서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지역소득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시·도 전체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031조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약 48조원 (4.9%)가 증가하였으며,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2.4%가 증가하였다. 전남 지역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활동 비중이 높은 지역이므로 성장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주의 지역내총생산 (명목가치 기준)은 22.5조원으로 전국의 2.2%인데 전남의 국가산단 등에 중화학공업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으로써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52.8조로서 전국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액은 인구가 1,115만명인 울산광역시의 52.7조원과 유사하였다. 전남에 비해 인구가 1.4배 많은 경북은 74.9조로서 전국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남에 비해서는 1.3배가 많은 액수이며, 경북은 전남보다 인구가 1.7배에 달하는데 지역내총생산은 1.4배가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전남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역총소득을 보면 서울시는 317.9조로서 지역내총생산보다 72.3조가 증가하였고 광주광역시도 59.5조로서 3.1조가 증가한 것에 비해 전남 지역은 지역내총생산인 52.8조에서 지역총소득은 32.5조로서 20.3조가 감소하였으므로 전남의 지역내 총소득의 38.4%가 역외 유출되었다. 경북의 지역총소득은 54.8조 이었으며, 경남의 지역총소득은 60.2조 이었으며 역외로 유출되는 금액은 각각 13.7조, 14.7조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역외 유출 비율은 경북이 0.2%, 19.65 이었다. 따라서 경북이나 경남에 비해 전남에서 역외 유출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전남과 유사한 울산광역시 지역총소득이 38.0조로서 14.7조가 유출되어 그 비중은 27.9%에 달하였다.

지역의 생산이 유출되는 현상을 권역별로 좀 더 분석하여 위하여 영남권과 호남권으로 권역별

* 2008년 지역소득 (잠정), 2009. 12. 23, 통계청 조사관리국 지역경제통계과

로 통계를 재산출 하여 보면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와 전남을 합쳐서 75.3조에 불과하지만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부산, 울산의 영남권은 285.6조에 이른다.

권역별 역외 유출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전남에서 광주로의 역외 유출이 약간 일어나는 수준일 뿐 (표 5) 대부분의 유출은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남권에는 경북과 경남도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존재하는데 대구의 경우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 비해 4.1조가 증가하였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3.1조가 증가하여 광주가 0.2조 증가한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따라서 경북과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주변 대도시에 유입되는 정도가 전남보다 높았으므로 상대적으로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유입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지역총소득 중 전남 등 외지로 부터 유입되는 비중이 0.9%에 불과하지만 대구광역시는 10.9%이었으며 부산은 5.2%이었다. 따라서 전남권의 유출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광주광역시로 유입되는 비중이 낮아 결국 전남도에서 유출되는 생산은 수도권 등 호남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광역경제권의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총소득

	전국	호남권			영남권						
		광주	전남	합계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합계	
지역내총생산(명목)	1,031.5	22.5	52.8	75.3	68.5	33.4	74.9	56.4	52.7	285.9	
(전국대비 비중)	100.0	2.2	5.1	7.3	6.6	3.2	7.3	5.5	5.1	27.7	
소득 지표	지역총소득(명목)	1,038.2	22.7	32.5	55.2	54.8	37.5	60.2	59.5	38.0	250.0
	(전국대비 비중)	100.0	2.2	3.1	5.3	5.3	3.6	5.8	5.7	3.7	24.1
	(지역총생산대비 비중)	100.6	101.2	61.6	73.4	79.9	112.3	80.4	105.5	72.0	87.4
	(명목 증가율)	5.4	2.5	5.4		18.4	3.4	12.6	5.0	13.4	
유출액 (명목) ¹⁾		0.2	△20.3	△20.1	△13.7	41	△147	31	△147	△35.9	
(비중) ²⁾			38.4	26.7	20.0		19.6		27.9	12.6	
유입액 (비중) ³⁾		0.9				10.9		5.2			
개인 소득(명목)	616.9	17.2	19.0		30.2	28.6	38.5	42.7	16.7		

주1) 유출액 = 지역내총생산 - 지역총소득

주2) 비중 = 유출액/지역내총생산*100

주3) 유입액 비중 = [(지역내총소득 - 지역내총생산)/지역내총소득]*100

※ “2008년 지역소득”를 이용하여 재작성

지역소득의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수준의 비율을 이용하여 지역소득 분배계정을 구하여 지역소득의 귀속을 분석하였는데 7대도시는 2008년도에 114.2를 나타낸 반면 9개도는 90.0으로서 100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서울은 지역소득 귀속이 119.4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광주는 100.9를 기록하여 소득 귀속이 100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광역시는 분배계정 값이 100을 넘은 값을 나타내어 생산액보다는 소득이 더 높은

수준으로서 외부로 부터의 소득 귀속이 발생하였지만 도 단위의 지역은 10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경북은 80.0, 경남은 80.4 수준인 것에 비해 전남은 61.6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7대도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수준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8년에는 소폭인 0.8p 하락하여 114.2를 나타냄으로써 지역소득 집중이 다소 완화된 현상을 보였다*. 1인당 지표로 환산한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충남이 29,964천원으로서 1위였으며, 그 다음이 전남으로서 29,585천원이었으며, 광주 15,519천원로서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 다음으로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다 (표 6).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전남은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으로 산정한 1인당 개인소득 수준은 10,670천원으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 또한 1인당 민간소비 금액도 전국 평균은 11,487천원인데 전남은 8,647천원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전남에서 이루어진 생산이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개인소득은 11,890천원으로서 7대도시 중 인천보다는 높았지만 호남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6] 지역소득 분배계정 및 1인당 소득분배계정의 시도간 비교 **

		전국	서울	광주	전남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지역내총생산 (명목)		1,031.5	245.6	22.5	52.8	68.5	33.4	74.9	56.4	52.7
지역총소득 (명목)		1,038.2	317.9	22.7	32.5	54.8	37.5	60.2	59.5	38.0
지역소득 분배계정 ¹⁾		100.6	129.4	100.9	61.6	80.0	112.3	80.4	105.5	72.1
1 인 당	지역내총생산	21,220	24,481	15,519	29,585	26,160	13,586	23,926	16,121	48,621
	민간소비	11,487	14,815	10,512	8,647	9,190	10,381	10,351	10,844	11,765
	개인소득(명목)	12,692	15,500	11,890	10,670	11,518	11,622	12,280	12,213	15,354
	분배(비율) ²⁾	59.8	63.3	76.6	36.1	44.0	85.5	51.3	75.8	31.6

주1) 지역소득 분배계정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수준 = (지역내총소득/지역내총생산)×100

주2) 개인소득 분배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1인당 지역총생산 대비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하였음 (1인당 지역내총생산/1인당 개인소득)×100

- 1) 연쇄방식으로 계산한 성장률 (개별업종 및 지출항목별은 2005년 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실질증감률)
- 2)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
- 3) 2008년도 자료를 잠정치임

※ “2008년 지역소득”를 이용하여 제작성

전남의 대표적인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에는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주를 이루면서 지역 생산액이 법인의 주소지인 외지로 유출되는 요인과 함께 주로 장치 산업 위주의 생산공장에서 석유 및 화학 제품과 철강 등 1차 소재 등이 주요한 생산품목이라는 요인 등으로 1인당 민간소비수준과 1인당 개인소득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통계청에서 최근 개발한 지역소득 분배계정 지표를 활용하여 2000년 이후의 소득분배계정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활용하여 명목가치의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총소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소득은 경우에는 총처분가능소득 자료를 활용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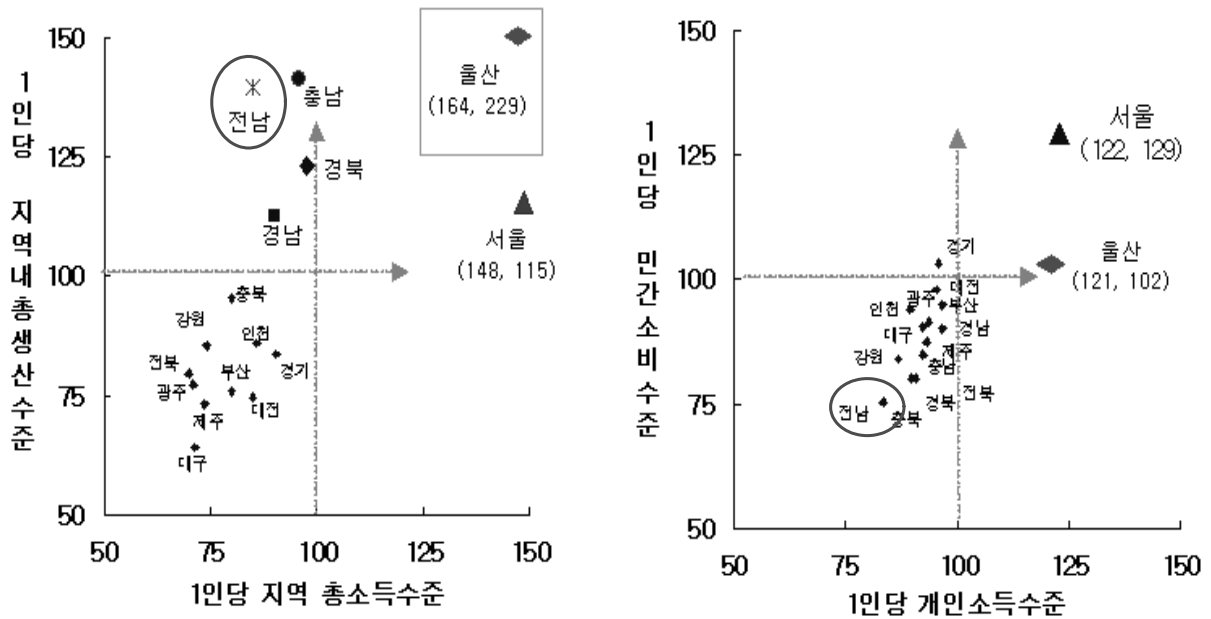
* 2008년 지역소득 (잠정), 통계청, 2009.12.22

** 지역소득 분배계정은 통계청에서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개발한 지표로서 지역소득의 귀속(분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 통계청에서 2009년 12월 23일 발표한 「2008 지역소득」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이는 지역총

지역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을 통하여 산출한 소득분배계정을 보면 총생산에 비해 소득이 귀속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전광역시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이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도 이후에는 줄곧 선두를 기록하였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분석기간 내내 선두자리를 유지하였으며 서울시와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소득 귀속이 점차 서울시로 편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소득 지표

출처: 2008년 지역소득 (잠정), 통계청, 2009.12.22

그러나 전남은 분석기간인 2000년 이후 2001년에는 다소 개선된 바 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5년 이후 하향은 멈춘 상태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내내 약간의 등락을 거쳤는데 2005년과 2006년에 하향추세를 띠다가 이후 약간 개선되고 있다 (그림 2). 경북과 경남의 경우 일정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일반적으로 경남은 2006년 이후 상향 추세가 뚜렷하였으며 울산광역시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도지역의 소득분배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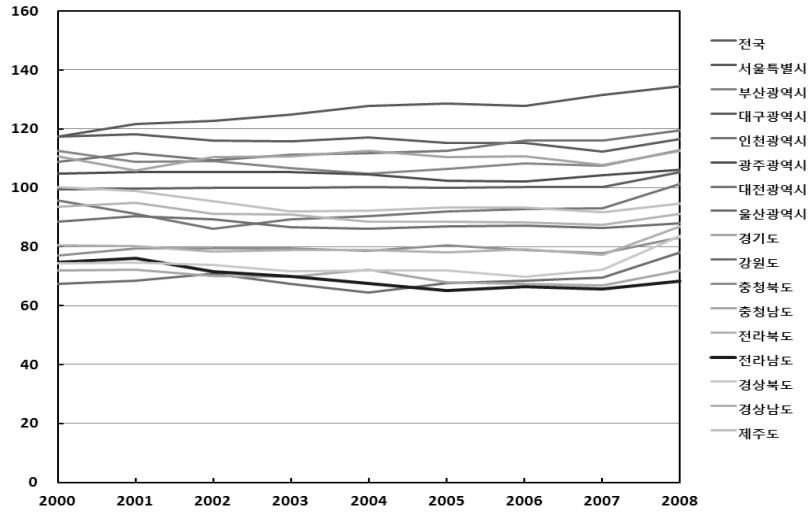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1인당 지역소득분배계정을 추계하기 위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 금액을 1인당 개인소득 금액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에 대비하여 1인당 개인소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으나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역시 전남이었다 (그림 3).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남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향추세를 유지하고

소득 자료와 총처분가능소득의 값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지역총소득 자료가 포털사이트에 존재하는 제도부문별 자료에서 총분원소득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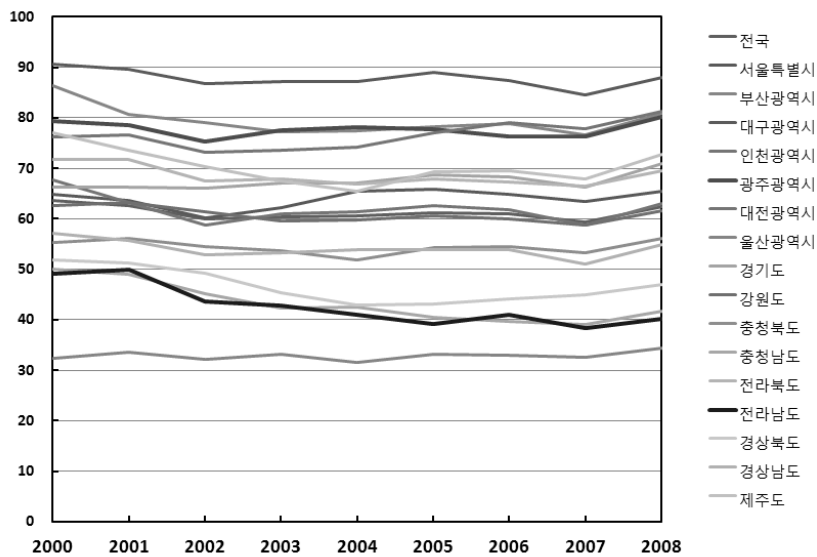
* 주) 100이상은 지역총소득이 지역총생산보다 많음을 의미

** 이 분석 방법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방법은 아니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대해서 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의상 본 연구자가 사용한 분석방법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철강과 중화학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총생산의 지역내 분배구조가 매우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개인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2]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을 통한 지역소득분배계정



[그림3]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비 1인당 개인소득을 통한 지역소득분배계정

경상남도는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유지하다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시된 이후인 2005년 이후 반등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남은 2005년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도 지역소득』 자료에 의거하여 비금융, 금융, 정부, 개인 등의 제도부문별 지역내 총 소

득을 살펴보면 서울은 비금융소득이 23.8%, 금융소득이 9.6%, 정부소득이 10.7%, 개인소득이 55.9%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대비 지역총소득은 30.6%이었다.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23.8%이므로 서울 외의 지역으로부터 많은 유입이 있다고 여겨진다.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광역시에서도 지역총생산의 전국대비 비율에 비해 지역총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이들 광역 시도 인근 지역을 비롯하여 도 단위의 지역으로부터 소득 유입이 일어나고 있었다.

광역시 중에서 지역내총생산의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으로는 중화학공업단지인 울산광역시의 경우 총생산 비중은 5.1%이었는데 총소득 비중은 3.7%에 불과하여 총생산의 많은 부분인 전국 대비 1.4%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서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대비 5.1%에 달하는데 지역총소득은 전국대비 3.1%로서 비금융법인기업의 8.9%, 금융법인의 0.3%, 정부 부문이 33.6%, 개인소득이 57.2%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국대비 2%의 재화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중 서울 등의 수도권에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총생산의 유출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는 지역소득분배 계정을 통하여 살펴본 자료와 같이 지역의 소득이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과 경북 등의 지역에서도 총생산의 유출이 많이 일어난다. 경남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7.3%에 달하여 서울, 경기도에 이어 3번째 순위인데 지역총소득은 전국대비 5.8%로서 1.55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는 총생산은 전국대비 6.6% 인데 총소득은 전국대비 5.3%로서 1.3%가 유출되고 있었다. 충남과 충북도 총생산이 유출되기는 마찬가지 였는데 충남은 총생산이 전국대비 5.6%이었으나 총소득은 전국대비 3.8%로서 1.8%가 유출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총생산은 전국대비 2.9%이었으나 총소득은 전국대비 2.4%로서 0.5%가 유출되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은 총생산은 19.4%이었으나 총소득은 전국대비 20.9%로서 1.5%가 유입되었다. 강원도 지역은 전국대비 2.6%의 총생산을 나타내었는데 지역내 총소득은 2.2%로서 0.4%가 유출되었다.

결국 전국에서 9개도 지역의 총생산은 서울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총소득이 서울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출이 큰 지역으로는 중화학공업단지 등이 집중적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면서 수도권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부터의 유출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부가가치액을 당해년가격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2000년에 비해 전국은 540조에서 992조로 70.5%가 증가하였는데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은 전남은 90.6%가 증가하였으며, 울산도 역시 90.1%가 증가하였다. 또한 경북도 87.7%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섬유산업 침체로 제조업의 약화가 우려되었던 대구광역시가 부가가치 증가가 가장 낮아 49.5%에 불과하였으며, 서울 63.1%, 부산 65.3%, 광주 67.8%, 경북 68.7%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총부가가치는 224조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174조이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총부가가치가 2008년도에 51.7조이었으며, 대구광역시는 30.0조, 광주광역시는 20.0조, 울산광역시는 40.5조이었으며, 경북은 63.3조, 경남은 67.9조에 달하였으나 전남 지역의 지역내 총부가가치는 44.2조이었다. 따라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총부가가치는 91.3조에 불과하지만 영남권의 총부가가치는 253.3조로서 호남권의 2.8배에 달하였다. 인구는 2009년말기준으로 영남권이 11,952,863명으로서 5,201,152명인 호남권보다 2.3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총부가가치 비중이 호남권보다는 영남권이 더 많았다.

따라서 전남지역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지역내총부가가치의 증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지만 지역소득분배계정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전남 지역의 총생산이 가장 높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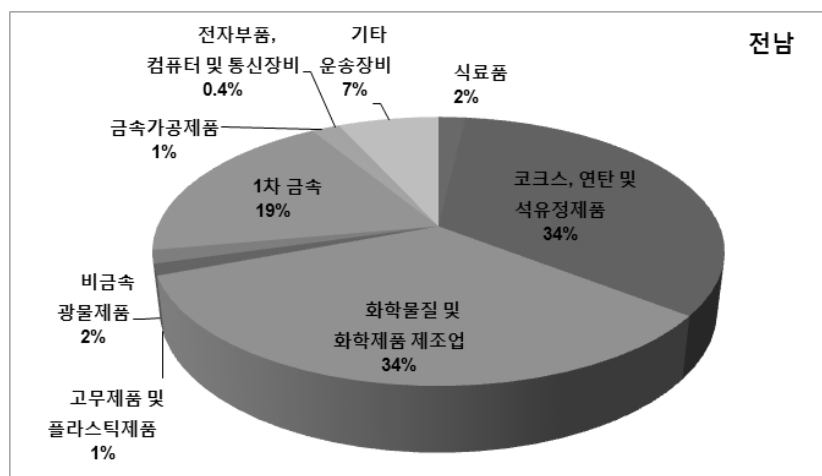
율로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남 지역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장치산업 중심,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서 고용을 통한 지역소득분배효과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도 1인당 명목 GRDP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양시로서 5,504만원에 이르렀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여수시로서 4,840만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1인당 지역총생산은 2008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 자료에서 보면 1인당 전국 평균 지역내 총생산은 2,122만원이며, 전국에서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업도시인 울산으로서 4,862만원이었다. 전남의 경우는 1인당 GRDP가 2,959만원으로서 충남의 2,996만원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서 1,359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552만원이었다.

2007년도 1인당 GRDP와의 비교이지만 광양시의 경우 1인당 GRDP가 울산시보다도 월등하게 높았으며, 전남의 2위 지역인 여수시의 경우에도 울산보다는 22만원이 낮은 정도이었으며, 영암군의 경우에도 4,696만원이었다. 따라서 전남의 경우 기업입주가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GRDP는 월등하게 높았다.

결국 전남의 경우 기업도시인 경우 지역내 총생산이 높았지만 소득과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지역의 총생산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유출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도가 전남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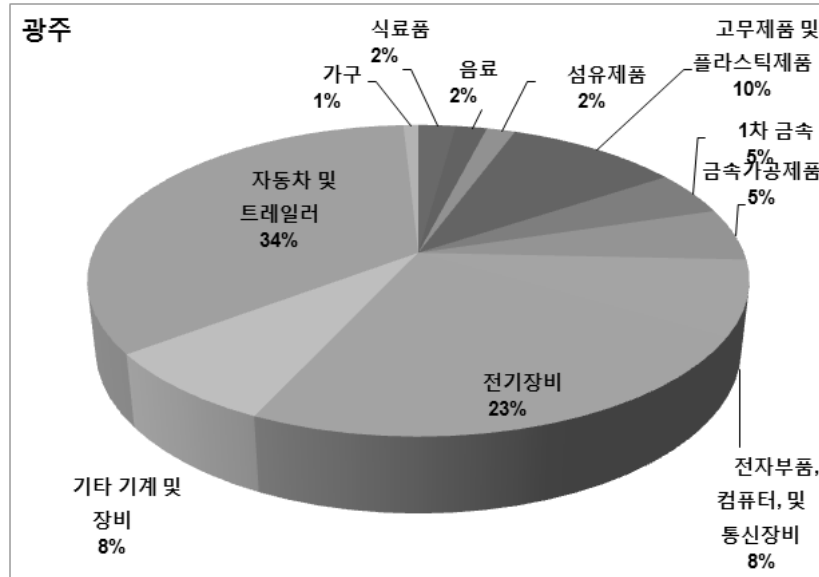
전남의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1.66%로서 전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중 5.76%를 차지하였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기초소재형이 1.35%로서 전남 전체 제조업 구성 중 81%를 차지하여 기초소재형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가공조립형의 비중은 0.25%로서 전남 제조업의 1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생활관련형은 0.06%로서 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남 지역의 소득분배계정이 낮고, 고용창출이 낮은 이유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 중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등의 기초소재형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4).



[그림 4] 전남지역 제조업 산업별 분포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운송장비, 전기전자제품 등의 가공조립형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림 5) 이들 분야의 경우 비교적 고용창출이 기초소재형보다는 더 높은 편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8.84%로서 이의 구성을 보면 기초소재형이 9.25%

로서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 중 32%에 이르고, 가공조립형은 16.7%로서 제조업 중에서 57.7%를 이루며 생활관련형 제조업이 나머지 10.2%를 이룬다. 전남 지역은 공공행정 부문이 0.38%이었으며,은 농림어업 다음으로 건설업이 0.41% 등의 순으로 전남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5] 광주광역시 제조업 산업별 분포

그렇다면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구성을 다른 광역시 및 도 단위에서 비교하여 본다면 산출액 측면에서는 2000년에 비해 광주광역시는 농림어업의 총산출액이 24.3%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남은 2000년에 비해 농림어업이 12.0%가 증가하였지만 지역내총부가가치 측면에는 전남의 농림어업의 비중이 23.4%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남의 농림어업은 산출액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는 감소하여 경제성은 2000년에 비해 월등하게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진 점은 경남이나 경북이 비해서도 월등하게 성과가 저조한 편인데 경북의 경우 산출액은 2000년 대비 25.6%가 증가하였지만 지역내총부가가치 비중은 5.5%의 증가에 불과하였지만 경남의 경우 농림어업의 산출액이 2000년에 비해 31.2%가 증가하였지만 지역내 총부가가치 비중은 7.2%가 증가하였다. 농림어업이 전남은 산출액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1위이지만 지역내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경북지역보다 낮아 2위에 그친다. 따라서 전남의 경우 농림어업의 경쟁력도 최근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과 경남, 경북 등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유사하게 높은 편인데 전남의 농림어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남은 농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을 대분류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출액 측면에서 2000년에 비해 광주광역시가 제조업의 증가가 127.6%, 전남이 181.3%를 기록하여 전구 평균인 110.4%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조업이 124.0%가 증가하였으며, 울산광역시는 151.1%가 증가하였으나,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구는 56.6%에 불과하였다. 경상북도는 제조업의 산출액이 2000년에 비해 116.2%가 증가하였으며, 경남의 경우에는 136.8%가 증가하였다.

2000년에 비해 지역내 총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지역은 전남으로서 198.8%가 증가하였는데 기초소재형 제조업에서 193.8%, 가공조립형 제조업에서 342.7%가 성장하는 등 지난 2000년 이후 전남 소재 기업의 경영 성과가 높아 기업의 성장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성장률은 전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특히 기초소재형 제조업과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이한 점은 전남의 경우 가공조립형 성장세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구성 비율이 워낙 낮은 편이었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가공조립형의 비중이 전남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그 결과 전남 지역의 소득분배계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다소 회복세에 이르는 원인이 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소득분배계정에 있어 경남지역이 보다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초소재형 제조업보다는 가공조립형 제조업 비중이 3~4배 정도 월등하게 높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소재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성장은 산출액 측면에서 2000년에 비해 151.1%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부가가치의 증가는 92.9%에 불과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울산시의 기초소재 제조업의 경제성은 다소 적게 성장하였다. 결국 전남 지역은 석유정제, 화학기초소재 생산, 철강 등 제1차 금속제조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그림 4)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은 편이며, 기업의 성장세도 높은 편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전남의 제조업 성장세가 높은 것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수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농림어업의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에는 전국 인구 대비 7.9%이던 수준에서 2008년은 7.2% 수준으로 0.7%가 감소하였으며, 인원도 12만 5천명이 감소하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2005년 18/15 수준에서 0.7%가 낮아져 2008년에는 17.4%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05년 73.5%에서 1.9%가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75.4%로서 전체 업종 종사자의 3/4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의 고용이탈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면서 고용이 서비스업에서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성장도 저조한 편이며, 경제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원 비중이 각각 2008년도에 0.7%, 1.7%, 1.6%로 나타났는데 2005년도에 비해 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광주광역시의 인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전남의 경우에는 아직도 농림어업 인구위 비중이 2008년도에 27.9%를 이룸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2005년도의 30.6%에 비해 2.7%가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전남의 경우 이처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총부가가치 감소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소득분배계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인구는 2005년 23.9%에서 23.6%로 0.3%만이 감소하였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16.2%에서 14.1%로 2.1%가 감소하였다.

광공업의 비중은 전국적으로는 1.25가 줄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비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광공업 비중이 21.4에서 19.2로 2.2%가 줄어 전체인구가 3만9천명이 감소하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18.3에서 18.2%로 0.1%가 줄었으며 전체 인구는 2만7천명이 감소하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37.3%에서 34.2%로 3.1%가 줄어들었다. 경북의 경우에는 광공업 종사자 비중이 2005년 19.1%에서 2008년 16.0%로 3.1%가 줄어들었으며 서비스업은 57.0%에서 60.5%로 3.5%가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1만1천명이 감소하였다. 경남의 경우 지역소득분배계정이 최근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 양상이 양호하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광공업 종사자 비중은 22.6%에서 24.7%로 2.1%가 증가하여 제조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결과 6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한편 광공업 종사자수는 13.6%에서 11.5%로 2.1%가 줄어들어 광공업 종사자수는 7만3천명에

불과하였다. 전남 지역은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 및 대불산업단지 등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광공업 종사자 비중은 9.1%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 8만5천명에서 2008년에는 오히려 3천명이 감소한 8만2천명으로서 경상북도의 21만 6천명, 경남의 37만 8천명에 비해 월등하게 적어 1/3내지 1/5 수준에 불과한 편이다. 따라서 전남의 경우 기초소재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역내 총생산액과 지역내 총부가가치의 증가에 비해 전남지역 고용확대를 견인해내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III. 결론

지역총생산과 지역소득은 생산부가가치의 귀속문제로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지역총부가가치가 증가할 경우 그것이 전부 타 지역의 소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 될 수 있으며,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의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것도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남의 문제는 지역총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소득을 비롯하여 지역소득분배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산업이 전남 등의 지역의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라는 점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등이 요소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출주도형,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인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